하우리

도전과 행동, 변하지 않을 '벤처의 미덕'

하우리 권석철 대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벤처' 다운 기업으로 하우리(대표 권석철)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원형 또는 미덕을 여전히 품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하우리의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과연 그러한 평가가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동호인들이 의기투합해 공동창업을 감행했고, 굴지의 대표적인 바이러스 업체에 과감히 도전장을 냈다. 곧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업체를 위협하며 기술력을 입증해 보였다. 이렇듯 하우리는 진정한 벤처기업의 미덕을 말뿐이 아닌, 행동과 성과로서 풍성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백신 유료화 주장으로 논쟁의 중심에

"재밌었다구요? 그런데 왜 '폭소클럽'에서 섭외가 안 들어올까요?"

얼마 전 권 대표가 출연한 〈e-토크쇼〉를 먼저 화제에 올렸더니 돌아온 조크다. 그는 개그맨 뺨치는 재담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방송사를 들락거리기도 했던 개그맨 지망생 시절의 추억을 갖

고 있다. 그러나 요즘도 '펀(fun)경영'을 표방한다든지, 작게는 '개그 콘서트' 출연진과 하우리 직원들의 미팅자리를 만드는 등의 일을 벌이는 걸 보면 개그에 대한 애착이 한 때의 바람 정도는 아니었던 듯하다.

"어쩌면 경영자의 자리에서도 '아마추어 개그'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개그맨들이 평소에 얼마나 진지한지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권 대표의 주장들은 참신하면서도 진지했고, 적절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바이러스 백신 유료화 주장을 전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때도 그랬다. 여러 언론들이 매우 비중 있게 그의 주장을 전했고 심지어 어느 경제 주간지는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 네티즌들은 토론장에서 끝없는 리플들을 달아 놓았다.

"권석철이 돈독에 올랐다느니, 하우리가 마케팅용으로 뿌린 것을 봉사했다는 식으로 위장한다, 뭐 이런 욕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건 옳은 거다, 라는 격려도 많았고요. 요즘 네티즌들이 대단하잖아요? 2000원 정도면 적정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해요."

요즘은 정부기관에서도 백신 유료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하우리가 '님다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며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을 때부터 더욱 권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비유하자면, 우리 회사는 병원이면서 제약회사예요. 환자들이 병원에 급하게 올 때 '적십자 정신'으로 일단 살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복구를 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백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시 이용하게 될 때는 제대로 돈을 내고 사 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너진 지는 오래 되었다는 것이다.

"'사스'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국가가 백신을 사서 무료로 뿌린다거나 의료보험제 적용을 늘린다거나 하겠지요. 우리 세금으로 국방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 우리 제품을 쓰지 않는 은행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어요. 그 회사에다 이야기하든가, 조금 돈을 들여서 기술력을 사든가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동고(同苦)한 만큼 동락(同樂)해야

1990년대 중반부터 천리안 바이러스 동호회의 시삽이었던 권 대표는 열성적이었던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러 부산으로 내려갔다. '바이러스에 미친' 이들의 주머니 사정 탓에 전산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권 대표가 움직여야 했던 것이다. 이 동호회 소속의 5명이 모여 1998년 3월 하우리를 창업하게 된다.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걱정했고, 그들 역시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격렬하게 뚫어나가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다 한다. 단지 돈 때문이었다면 그렇게 열정을 불살랐을까. 이제 6개의 해외 법인과 80억 매출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지만 아직 유례없는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의 고생 덕이 아닐까.

"벤처업계의 어느 선배가 그러시더군요. 우리는 '동고(同苦)는 잘하는 데, 동락(同樂)은 잘 못한다'구요. 우리는 '동고'하면서 늘 싸웠던 전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신뢰가 생긴 거죠. 서로의 역할을 아는 것이구요."

권 대표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뛰어들지 않는 황무지를 맨몸으로라도 뛰어드는 것이다. 그 의욕과 열정이 피워 올린 싹을 키워 나가는 몫은 벤처인의 것이 아니란 것이다. 일종의 역할 분담론인 셈이다.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전망을 도출해야 할 지금, 창업자들이 서로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틔워 올린 하우리라는 싹이 소중한 이유이다. KOVA

● 이 한 장의 사진 ●

1999년 3월, 하우리 멤버들이 일주년을 기념해서 초 하나를 꽂았을 때다. 가운데에 권 대표의 앳된 모습이 보인다. 한갓진 창고 같은 협소한 사무실 배경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때 〈님버3〉란 영화가 유행했는데 그 영화에서처럼 짜장면을 많이 먹었어요. 공동 창업자들이니까 인건비는 안 들고, 아이엠에프 직후라 부도난 회사 집기며 서버를 모으는 식이었지요. 그런 건 사실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확신과 비전의 문제였어요."